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16년 만의 전국체전 우승을 이룬 순천공고 럭비부 선수들이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순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국체전 16년만의 금메달... 순천공고 럭비팀의 '무한도전'

# “다음 목표? 어디로 튈지 우리도 몰라”

1년을 기다린 눈물의 우승, 순천공고 럭비부의 도전은 계속된다.

순천공고 럭비부 선수들에게 이번 가을은 풍성하다. 3학년이 재학 중인 7명의 선수 모두 그 실력을 인정받아 연세대와 경희대로의 진학을 확정지었고, 무엇보다 꼭 해보고 싶던 전국체전 우승까지 이뤘다.

지난해 아쉬움을 털어낸 16년 만의 우승이었다.

순천공고는 지난해 심판 판정 논란과 상대팀의 부정선수 논란까지 불거지는 악재 속에 전국체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서러운 눈물을 펄펄 흘려야 했던 선수들은 올 시즌에는 한데 얹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올 시즌 전국대회 우승팀들을 잇달아 물리치고 이룬 값진

지나해 판정논란 준우승 아픔  
 악으로 강으로 정신으로 우승  
 “전국대회 우승 준비해야죠”

우승이었다.

백선운 감독과 박광일 코치의 맞춤식 특한 체력훈련이 통했다.

박 코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경기시간이 전·후반 5분씩 늘어났다. 럭비에서 5분의 차이는 크다. 대회에 가기 전날까지도 체력훈련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호’ 서울사대부고에 이어 준결승에서 홈팀 대구 상원고와 혈투를 벌인 데 라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충북고와의 결승

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5까지 리드를 하던 순천공고는 갑작스런 체력난 조 속에 19-15까지 쫓기며 전반을 마감했다. 체력이라는 무기가 무더어진 순간 ‘팀워크’가 그 위력을 발휘했다.

주장 허재준은 “어려운 팀들을 꺾고 결승에 올랐던 만큼 자만했던 부분이 있었다. 한 순간에 갑자기 전세가 뒤틀렸다. 전반이 끝나고 지난해 아픔을 다시 겪지는 말자며, 악으로 강으로 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며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우승이다”고 말했다.

우승을 바라는 간절함도 있었다. 우승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서울 사대부고와의 경기가 있던 날 신경수 교장과 씨름·유도·태권도·유수 선수들을 이끌고 결전지 대구를 찾았던 순천공고 체육 지도자들은

이른 새벽 팔공산에 올라 승리를 기원하는 절까지 올리는 정성을 보였다.

올 시즌 단체대진 종목 부진으로 전남이 12위로 한 계단 추락한 가운데 순천공고 홀로 단일팀 단체인 우승을 이루며 빛을 발했다.

1년을 준비한 전국체전이 이제 막 끝났지만 선수들은 벌써 2연패를 위한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

백 감독은 “전남에서 럭비부가 있는 곳은 진도중이 유일하다. 또 어려운 운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선수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팀워크로 선수들이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묵묵히 훈련을 해주는 선수들에게 고맙다. 2연패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바르샤, 한 경기 996개 ‘패스 축구’

UEFA 챔피언스리그 셀틱 꺾어  
 맨유, 브라가에 3-2 역전승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두 골을 몰아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맨유는 24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치러진 UE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에서 브라가(포르투갈)에 먼저 두 골을 허용하며 끌려가다 에르난데스의 2골에 힘입어 3-2로 역전했다.

맨유는 3승(승점 9)을 기록해 H조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맨유는 전반 2분 브라가의 미드필더인 알란에게 헤딩 골을 얻어맞고, 20분에는 추가 골까지 허용해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낸 것은 에르난데스였다. 에르난데스는 전반 25분 볼의 신의 크로스를 받아 골을 터뜨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에르난데스의 골로 희망의 불씨를 살린 맨유는 후반 17분에 수비수 조너선 에번스가 로빈 판 페르시가 찬 코너킥을 골로 연결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어 에르난데스가 후반 29분 톨클레벨리가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딩으로 받아 브라가의 골망을 흔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G조 경기에서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셀틱(스코틀랜드)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호르디 알바의 골 덕분에 2-1로 이겼다. 3승, 승점 9를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G조 1위 자리를 굳혔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75%의 점유율에 무려 996개의 패스를 시도해 883개를 성공시키는 경이적인 패스 축구를 했다. 이날 상대팀인 셀틱은 337개의 패스를 시도해 182를 성공시켜 대조를 보였다.



FC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가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 노우 경기장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G조 셀틱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이 경기에서 75%의 점유율에 무려 996개의 패스를 시도해 883개를 성공시키는 경이적인 패스 축구를 했다. 이날 상대팀인 셀틱은 337개의 패스를 시도해 182를 성공시켜 대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 FIFA, 12월 클럽월드컵서 ‘골 판정 장비’ 시험 가동

축구에서 불이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판별하는 전자기술이 연말에 첫선을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골 판정 전자장비 기술의 공급업체로 ‘호크아이(Hawk Eye)’와 ‘골레프(GoalRef)’를 확정해 계약했다고 24일 발표했다.

FIFA는 이를 시스템을 올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12 FIFA 클럽 월드컵 경기

에서 시험 가동하기로 했다.

골 판정 장비는 골라인에서 일어나는 오심이 승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입됐다. 심판의 인간적 실수는 경기의 일부이지만 골라인에서는 판정이 무조건 정확해야만 축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연합뉴스



## 김장미 또 금 쏘다

월드컵파이널 주종목 25m 권총서 우승

한국 여자 사격의 김장미(20·부산시청·사진)가 세계 최고의 사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2012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파이널에서 주종목인 25m 권총 금메달을 땀다.

김장미는 24일 태국 방콕에서 막을 올린 월드컵파이널 라이플 대회 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205.2점을 쏘 분선 점수 588점과 함께 793.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분선 및 결선 합계 791.3(591+200.3)점을 쏘 분선 점수 588점(독일)과 790.3(583+207.3)점을 기록한 천잉(중국)을 각각 2위와 3위로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다.

타고난 ‘감심장’으로 결선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김장미는 올해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들이 겨루는 월드컵파이널에서도 막판 결선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김장미는 본선 사격에서는 588점에 그쳐 591점을 쏘 도호수렌과 590점을 기록한 올레나 코스테비치에게 밀려 3위로 분선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 마지막 4사리드 5발 중 네번째 발은 만점 10.9점에 가까운 10.8점을 쏘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FIFA가 박종우 문제 부담 느끼고 있다”

조종연 축구협회장 귀국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를 방문하고 돌아온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은 FIFA가 ‘박종우 세리머니’의 징계위원회 처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스위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내에서 계속 연락이 가고 외국 언론까지 관심을 두다 보니 FIFA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이 열린 이란 테헤란에서 골장 스위스로 이동한 조 회장은 FIFA에서 박종우(23·부산) 문제와 대한축구협회의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에서 FIFA 관계자와 2차례 미팅을 가졌다”면서 “실무 관계자들을 만나

(박종우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FIFA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박종우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달린 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FIFA 징계위원회는 FIFA 법무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법무국은 대한축구협회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조종연 회장은 “국내외에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FIFA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 달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조 회장은 지난 17일 축구협회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 홍스페이스 모던가구 & 이태리가구 모던가구 런칭 30% 특별가 판매, 혼수가구 환영!

**78만원**

**4인셋 98만원**

**4인셋 175만원**

**2+2 98만원**

홍

스페이스

SPACE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1899-0240

www.hong79.com(홍천구닷컴)

NAVER **홍스페이스** 검색